

### 13. 소설 문학

- ▷ 글에 중심 내용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나머지 내용이 연결되듯, 소설에도 초점이 되는 대상이 있다. 따라서 이 대상을 찾는 것이 내용 이해의 핵심이다.
- ※ 서술 초점 : 인물, 사건, 심리가 가장 많다. 대부분 이 셋 중의 하나이다.
- ※ 서술 초점 제시 방식 : 서술자의 직접적 제시, 인물의 행동이나 생각, 대화 등으로 간접 제시
- ※ 인물의 행동이나 생각, 대화가 간접 제시인 까닭은 ? 원래는 서술자가 관심을 가진 것이지만 인물의 말이나 행동 등에서 자신의 의도에 맞는 것을 취사선택하여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우회적 제시, 가점적 제시로 보아야 한다.
- ▷ 소설에서 선지 구성은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서술 방식의 선지는 다른 소설에서 가져온다. 따라서, 서술 방식은 하나하나 면밀하게 찾아보아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는다.
- ▷ 주로 고전 소설에서 사자성어 문제가 나온다!! 따라서 나온 사자성어는 몽땅 외우자!!!!(부록으로 제시 예정/안 했다면 까먹은 것임)

특성	세부 내용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로 영웅적/신비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들이다.</li> <li>▪ 양반인 경우 당대의 사회적 가치관(특히 유교적) 가치관에 충실하다.</li> <li>▪ 여성인 경우 여성의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 영웅인 경우도 이를 넘어서지 않는다.</li> </ul>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차적 구성이며, 일대기적 구성이 많다.</li> <li>▪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li> </ul>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이 배경군웅소설인 경우가 많다.</li> </ul>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선징악/행복한 결말 유지</li> </ul>
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아한 문어체의 사용이 많으며 한자성어 및 한자어의 사용이 많다.</li> <li>▪ 문장이 대체로 길고 ~더니, 등과 같은 종결어미가 사용된다.</li> <li>▪ 서술자적 개입이 대체로 나타난다.</li> <li>▪ 서술자가 등장 인물의 과거 사연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li> </ul>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가 인물들의 심리를 모두 파악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li> </ul>

#### ▷ 기출 발문 익히기

[1106 현대]

- 28.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9.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30. 꼬두메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31. 문맥상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09 현대]

35.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6.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7. ㉔의 결과로 나타난 시우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38.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06 고전]

47. 위 글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한 것은?
48. <보기>의 ㉑~㉔ 중,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49.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0. 위 글에 드러난 상황을 한자 성어를 이용하여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109 고전]

21.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보기>를 참고하여 22번과 2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2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3.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4. ㉑의 상황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그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꼬두메를 찾아 내려가고 있는 참이었다. 허황하기조차 한 그녀의 낫두리를 좇아 이렇듯 추운 한겨울밤을 완행열차에 흔들리며, 떠나온 지 십삼 년이 넘은 고향으로 향하게 되리라고는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미처 상상조차 못 했던 것이다. 이 느닷없는 귀향길은 어쩌보면 어처구니없을 만큼 충동적으로 결행된 셈이었다. 아내의 말마따나 제정신이 아닌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바로 이날 오후였다. 휴일이 아닌데도 그는 담배꽂초만 재떨이에 수북하게 쌓아 가며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다. 몸이 불편해서 출근하지 않는 줄로만 여겼는지, 아내는 되도록이면 그를 혼자 있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눈치였다. 이날 아침 그는 기어이 사표를 써서 집 앞 우체통에 넣었던 것이다. 몇 푼 안 되는 퇴직금은 고사하고라도 몇 달째 밀린 봉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다. 무엇보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동료들의 누렇게 뜬 얼굴들을 대하기가 소름이 돋도록 두려웠다. 결국 그는 또다시 실업자가 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번으로 꼭 두 번째였다. 신문사를 나온 후, 오 년 동안의 그 ㉠ 공백 기간에 겪었던 처참함을 그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아내는 다시 예전처럼 방 한 칸이 달린 구멍가게 자리를 구하기 위해 발바닥이 부르드도록 변두리를 돌아다닐 수도 없으리라. 그나마 남아 있던 쥐꼬리만 한 돈은 바닥이 난 지 오래였고, 전세금을 줄여 가며 변두리로만 이사를 다니다가 급기야 월세방 처지로 주저앉게 된 지도 벌써 이태째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도저히 또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설 용기도 아니, 그래야 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사라져 버리고 만 듯한 느낌이었다.

놀라우리만큼 자신이 허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이즈음에야 그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어머니의 몰락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가장 확실한 선물일 수도 있었다. 어머니의 그 넓고 미더운 그늘이 머리 위에서 견히어져 버리고 난 후, 그는 ㉡ 햇볕 속으로 나온 음지 식물처럼 삼시간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다. 놀놀한 콧물을 후룩거리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는 수없는 방황을 치러 왔지만, 그때마다 그를 단단히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준 것은 바로 어머니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던 것이다. 오 년의 실직 기간 동안, 거의 날마다, 그것도 언어마신 술에 취해 밤늦게 돌아와 대문 앞에서 허물어지듯 쓰러져 버리곤 하던 그가 그래도 최후의 고집스런 용기만은 요행히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어머니의 그 ㉢ 변함없는 그늘을 은연중에 믿고 있었음으로 해서이리라.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그 야윈 손길마저도 아무런 ㉣ 기적을 베풀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 절망의 심연으로 까마득히 가라앉아 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중략)

아아. 이 눈 속에서 어머니는 혼자 어디로 가신 것일까. 찬우야이. 꼬두메로 팽 가자이. 불길한 주문만 같던 어머니의 음성이 컷전에서 맴을 들었다. 정말, 어머니는 기어코 꼬두메를 찾아가시겠다고 얼토당토않게시리 홀로 길을 나선 것일까. 온몸에 하얗게 눈을 맞으며 어디론가 하염없는 걸음을 옮기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꼬두메는 이미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 속의 마을이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이젠 더 이상 아무도 그곳을 기억해 주지 않는 이 땅을 떠나, 그 과거의 이름들이 아직 살아 숨 쉬고 있을 또 다른 세계를 찾아 길을 나선 것일까. 그렇다면 그 세상은 오직 어머니 혼자만 아는, 당신만의 소중한 세계일 터였다. 거기엔 어머니가 한시도 잊지 못했던 그리운 사람들과 정겨운 이름들이 예전 그대로 살아 있을 것이었다. 한쪽 눈을 못 보는 아버지와 착한 형, 그리고 어찌면 어린 시절의 그의 옛된 얼굴도 그 가난한 식구들 곁에서 함께 곤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니야. 그러나 그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어 버렸다. 꼬두메는 이미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땅각의 땅일 뿐이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분명한 사실을 다만 어머니 혼자서만 아직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찾아야 해. 어머니를 찾아내야만 해.

그는 마침내 흐드러지게 쏟아져 내리는 함박눈을 맞으며, 비틀거리며 걸음으로 잣고개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차츰 눈송이가 굵어져 가고 있었다. 은빛, 세상은 온통 은빛이었다.

- 임철우, 「눈이 오면」-

28.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sup>34)</sup>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담담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서술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sup>35)</sup>

<보 기>

임철우의 소설 「눈이 오면」은 고향을 찾아가는 ‘여로(旅路)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구조는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작중 인물의 성격 창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① ‘그’가 귀향 여행을 충동적으로 결행한 것으로 설정하여, ‘그’의 성격이 즉흥적이면서도 낙천적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② 십삼 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을 찾아가도록 하여, ‘그’가 지금까지 현실과 타협하면서 잘 적응해 왔음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 ③ 겨울밤 완행열차를 귀향 수단으로 택해 성찰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반성해 보도록 하였다.
- ④ 귀향 과정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제시하여, ‘그’가 사려 깊지 못하고 부주의한 인물이었음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 ⑤ 귀향하는 날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그’가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물로 변모되었음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30. 꼬두메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sup>36)</sup>

- ① 꼬두메에는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여 있다.
- ② 꼬두메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 ③ 꼬두메가 이 세상에 없음을 ‘어머니’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 ④ 꼬두메는 ‘그’가 가족과 함께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곳이다.
- ⑤ 꼬두메는 ‘어머니’가 찾아가고 싶어 하는 그녀의 소중한 세계이다.

31. 문맥상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sup>37)</sup>

- ① ㉠ : 실직했던 기간
- ② ㉡ : 세상의 따뜻한 인정
- ③ ㉢ : 한결같은 사랑과 보호
- ④ ㉣ : 삶을 지탱해 주거나 도와줌
- ⑤ ㉤ : 극심한 무력감과 좌절감

“알겠습니다. 이 일은 사모님, 부사장님, 저만 아는 비밀로 백삼집에 사건을 무마하도록, 실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뭐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모님이시다보니 신중을 기하느라고 조심할 뿐, 이 정도야 간단히 처리할 수 있죠. 저쪽이 훨씬 약하니까요. 그 처지에 돈 보고 환장 안 하게 됐습니까.”

“사무장도 말 좀 골라 뵈십시오. 같은 말이라도, 환장이 뭐요? 물론 우리 집안 명예와 어머니 명예도 중요하지만, 사무장도 이걸 명심하십시오. 운전수네 가족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 말입니다. 운전수 쪽 가족 생각이, 이번일은 돈에 시우 군이 팔린 게 아니라 주인아주머니의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운전수 된 도리로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뿐이다. 그러다 보니 그 성의 표시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게 되어 은혜를 갚는 느낌이다. 운전수와 가족이 이런 생각을 갖게끔 사무장이 처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돈이란 쓰기 나름이라 잘못 쓰면 오히려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욕까지 먹게 돼요. 운전수 가족에게 최대한 성의를 표하고 그들이 그 성의를 진실로 받아들여게끔 행동하란 말이예요.”

이 선생은 젊은 부사장의 설교조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

(중략)

이 선생이 누누이 들려준 말처럼 시우는 아무리 사태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1년 미만 징역에 2년 집행 유예로 나갈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선생이 올린 항소가 고법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자, 자기만 억울하게 함정에 빠진 듯했고, 사모님은 물론 가족마저도 돈에 눈이 어두워 자기를 속임수에 이용하는 듯하여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종우 형 면회가 있고부터 그는 한결 새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시우야, 일백삼십에서 또 오십만 원을 더 받았어. 네가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백팔십이 된 거야. 네가 우리 가족을 살린 거란 말이야. 그 돈이면 나두 공사판을 그만 두구 장사를 시작할 수 있어. 너도 야간이라도 학교엘 나갈 수 있게 됐구. 참아 줘. 이걸 정말 면목이 없다면, 어떡 하니. 그럴 수밖에 없잖니? 그에게 사모님을 만나 같이 네 애길 했더랬어. 선생에 다시 갚지 못할 빚을 내게 졌다면서말이야. 네가 출감하면 운전수든 뭐든 다시 일을 시키겠다고, 월급을 올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시우야, 이 형이 양심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돈으루 우리 두 성공하여 옛말하구 살자꾸나. 정말 성공하여 남부럽잖게 될 때, 이피 눈물 나는 고생은 그때 가서 위로하자…….”

떨쩍감치 선 간수 귀를 피해 귀엣말로 종우 형이 이렇게 말할 때, 두 형제는 함께 울었다. 시우는 검게 탄 형의 거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철창 사이로 굳게 잡은 형의 억센 손이 떨리고 끝내 꺼억거리며 흐느끼 때, ㉠ 시우는 여지껏 침묵한 채 참아 왔듯 몇 달을 참기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몇 달 감옥 생활을 이겨 내기로 결심했다.

오늘 아침, 녀 달 동안 ㉡ 집 안방과 다름 바 없는 안착지로 떠나게 되자 까닭 없이 마음이 설레 아침밥도 거르게 되고, 그게 공복과 더불어 한기를 가중시켰다. 시우는 연방 떨며 다시 중얼거렸다. 정말 겨울은 지금부터이고 고생도 시작인데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눈이 오면 날씨가 포근한 뱀인디 위찌 요렇게 차다냐. 이런 날은 개팔

자가 젤이여.”

“글쎄 말이다. 동지도 그름이모 열매 안 있어 새해 아닌가 말이다. 그 라모 햇수로 일 년 넘기는 긴데, 헤헤. 그렇게 햇수로 따져서 내보내 준 다 카모 난도 출감이 가까운데 말이다.”

도란도란 입김으로 나누는 말소리가 시우 귀에 다습다. 몇 명이 같은 감방에 있게 될는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수감될는지 모를 ㉠ 다정한 얼굴을 시우는 눈여겨보았다. 강도·절도·사기·살인, 각각 이마뺨에 눈에 띄지 않는 ㉡ 꽃말을 붙이고 그들은 겨울잠을 즐기는 두더지 꼴로 엉겨 있었다.

“짧은 친구, 이쪽으로 와. 거긴 더 추울걸.”

개팔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떨어져 앉은 시우에게 말을 던졌다. 구레나룻 시커먼 그는 토지 사기범이었다. 시우는 빙긋 웃어 보이곤 다시 쇠창살 밖으로 눈을 주었다. 버즘나무 가지에 매달린 고깔 열매가 눈을 맞고 있었다. 시우는 ㉢ 산타클로스 모자가 생각났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족이 쌀밥에 고기반찬을 먹겠거니 여겨졌다. 그리고 형은 지금쯤 눈을 맞으며 저 어디 화곡동이나 봉천동 신흥 주택 지대를 싸들며 식품점 벌일 점포를 물색하고 다닐 터였다. 그렇게만 되면 올숙이도 내년이면 ㉣ 맞춤 중학 교복을 입고 뿔뿔 터였다.

시우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과자며 음료수, 채소, 과일, 각종 일용품이 진열된 상점이 떠올랐다. 점포 이름은 고향 이름 그대로 백암 상회라 붙이겠다고 형이 말했다. 철창을 올려다보던 시우가 갑자기 말 울음소리로 웃었다. 그묘한 웃음소리를 듣고 동료 죄수들 눈이 그에게 쏠렸다. 개팔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시우를 보며 시큰둥 한마디 했다.

“저건 웃는 게 아니구먼. 웃음도 여러 질이여. 저 상관 봐여.”

- 김원일, 「잠시 늙는 풀」-

35.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8)

-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사물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사실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⑤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에 맞추고 있다.

36.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9)

- ① 부사장은 기만적인 인물이다.
- ② 시우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 ③ 죄수들은 다른 죄수에게 관심을 보인다.
- ④ 사무장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 ⑤ 종우는 시우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37. ㉠의 결과로 나타난 시우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40)

- ① ㉠      ② ㉡      ③ ㉢      ④ ㉣      ⑤ ㉤

38.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1)

<보 기>

김원일의 초기 소설은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권력에 의한 사건 조작 모티프는 약자의 삶에 고통을 가중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위 작품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구도 아래, 가진 자의 음모를 보여 주는 한편, 악의적 세계에 짓눌린 사람들의 실존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급박한 생존의 현실을 감내하려는 인물을 통해 부조리한 상황을 부각하였다.

- ① ‘말 울음소리’ 같은 웃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담아내고 있군.
- ② ‘백암 상회’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굴욕적인 현실을 견디게 해 주는 힘으로 볼 수 있겠어.
- ③ 사건 조작 모티프의 설정은 작가가 당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 ④ ‘사모님’이 약속한 배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으로 사람을 거래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어.
- ⑤ 면회소와 신흥 주택 지대의 공간적 대립은 가진 자의 악의적 세계와 그에 짓눌린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 주기 위한구도라고 할 수 있겠군.

이때 태수 절인수는 원수(元帥)를 가까이에서 모셨으며, 원수는 절인수 인 줄 아나 인수는 경작이 원수가 되었음을 생각지 못하더라. 원수가 아는 체하고자 하되, 군영(軍營)이 요란하여 사사로운 정을 펴지 못하였더니, 이제 변왕 남곽을 평정하고 군영이 고요한데 인수 홀로 모셨더라. 원수가 저의 몰라가지 않았음을 보고 시동을 불러 당상으로 청한대, 태수 사양하여 오르지 않거늘 원수가 친히 이끌고 가로되,

“인수 형이 능히 경모를 모르오?”

“소관(小官)이 정신이 밝지 못하고, 일찍 면식이 없으니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원수가 잠소(潛笑) 왈,

“형이 과연 눈이 무디다 하리로다. 옛날 금주에서 소 먹이던 목동이었던가 양 승상의 들췌 사위가 된 이경작을 모르오?”

태수가 생각 밖이라. 깨닫지 못하여 가로되,

“그 사람은 소관의 동서러니, 금주를 떠난 지 벌써 십일 년이옵니다.”

“십일 년 못 보던 경작이 곧 나이니 형은 모름지기 의아치마오.”

절 태수가 어지러운 듯, 취한 듯하여 오래 말을 못 하더니 이에 자세히 보니 완전한 경작이라. 놀라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지위를 잊고 손을 잡아 급히 이르되,

“경작 형! 꿈이오? 생시오?”

원수가 웃으며 왈,

“형은 놀라지 마오.”

하고 인하여 서로 잔을 들어 유쾌히 술을 마시며 정을 펼새, 태수가 매양 원수의 대덕과 넓은 도량, 기이한 풍도를 우러렀더니 이날 자리를 나란히 하여 잔을 날리며 별회를 베푸니, 마음에 세상일을 가히 헤아리기 어려움을 탄하더라.

원수가 문왈,

“외방에 있는 지 벌써 십일 년이라. 처형은 평안하시오?”

절 태수가 답소(答笑) 왈,

“나는 비록 약한 남자이나 조강지처를 무단히 버리지 아니하니 몸이 편하여 자녀를 갖추어 두었거니와, 형은 약한 부인을 무단히 버리고 십일 년에 이르도록 한 번 편지를 부치는 일이 없었소. 이제 몸이 으똌 벼슬로 부귀영광이 비길 곳이 없고, 어진 덕과 넓은 덕을 추앙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오직 빈 방의 약한 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니박덕함이 심하여 장차 약한 부인이 몸을 보존치 못하게 되었으니 가장 어둡고 무심한 장부라. 나는 비록 벼슬이 낮아 형을 모시고는 있으나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가히 형보다 낫다고 이르리로다.”

하고 대소한대, 원수가 또한 웃고 왈,

“형이 어찌 괴이한 말로써 나를 조롱하오? 가장 가소롭도다. 그리하나 금주의 처가는 평안하시오?”

태수 왈,

“집안은 평안하나 형의 부인이 병이 위중하여 속수무책 조석으로 목숨을 빈다 하니 형이 비록 몸이 영귀하나 무엇이 즐거우리오?”

원수가 듣고 놀라 얼굴을 붉히며 왈,

“과연 형의 말이 옳소?”

“비록 농담이라도 어이 큰 말에 허언을 하리오?”

“목숨의 길고 짧음과 부귀빈천은 하늘에 달렸으니 인력으로 어찌 하리

[A]

오?”

“형이 곧 경사(京師)\*로 가리니, 길이 금주로 지날 것이니 들러 감이 어떠하오?”

“부모 묘소가 계 있으니 들르지 아니리오?”

“어느 때에 경사로 향할 것이오?”

“백성이 어지러웠으니 서너 달 더 머물러 위로하고 가려 하오.”

“내 관아가 비록 작으나 수일 후 형을 전송하리니 벼슬이 높다고 사양하지 마오.”

원수가 소왓,

“본디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라. 주는 것을 사양할 리 있으리오? 먹는 양을 알아서 큼직이 준비하오. 내 당당히 가겠소.”

태수가 소왓,

“벼슬이 높으니 이제 그 술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

원수가 대소 왓,

“급제한 후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

태수가 소왓,

“내가 양식이 부족하여 풍성하지 못하니 형의 양에 차게 하려면 필연 죄를 면치 못하리니 올 적에 말총으로 창자를 줄라매고 오오.”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리고 가겠소.”

“그럴진대 아예 오지 말라 할 것이오.”

“국법이 본래 나 같은 사람을 각 도에서 영접하고 잔치하고 공경하고 관대하라 하였으니 적게 못할 것이오.”

두 사람이 대소하고 설 태수 돌아와 부인 난주를 대하여 이원수의 전후 일을 일일이 전하고 기특히 여김을 마지않으며,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남에 못내 감복하더라.

- 작자 미상, 「낙성비룡(洛城飛龍)」-

\* 경사 : 나라의 수도.

47. 위 글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한 것은?42)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 ④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48.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43)

<보 기>

「낙성비룡」은 조선 왕실에서 향유되었던 낙선재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영웅소설인 「소대성전」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신이한 태몽을 가지고 탄생한다.
-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생한다.
- 인물됨을 알아보는 장인 될 사람을 만난다. …………… ㉠

- 한때 잠을 많이 자는 모습을 보인다. ....㉠
- 장모의 구박으로 처가를 나온다. ....㉡
- 수련을 거쳐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 ....㉢
- 아내와 해후하여 행복하게 산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49.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sup>44)</sup>

- ① 처자식을 중시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어질고 넓은 상대방의 인품을 칭송하고 있다.
- ③ 처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④ 손윗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잘못된 처신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벼슬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당당히 말하고 있다.

50. 위 글에 드러난 상황을 한자 성어를 이용하여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sup>45)</sup>

- ① 경모가 11년 만에 돌아온 것은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경모와 설 태수가 다시 만난 것은 오월동주(吳越同舟)라고 할 수 있어.
- ③ 경모가 설 태수에게 국법을 운운한 것은 정말 적반하장(賊反荷杖)이야.
- ④ 설 태수가 경모를 보고 놀란 것은 경모가 환골탈태(換骨奪胎)했기 때문이야.
- ⑤ 설 태수와 경모가 서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한 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대표적인 예야.

하루는 승상이 심자가 상쾌하여 정신을 깨달아 대당에 들어가 부인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는지라.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것이 우리의 골육이니, 남은 다 흉물이라 하여도 출산할 때에 선녀의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심한 것이라면 어찌 선녀가 와서 해산까지 시켰으리오? 필경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 듯하니, 아무리 흉악해도 집에 두고나중을 보사이다.”

하고 저녁을 먹으니, 그것이 밥상 곁에서 밥 먹는 소리를 듣고는 이불 속에서 데굴데굴 굴러 나와 승상 곁에 놓이었다. 승상이 크게 놀라 이윽히 보다가 갑자기 생각하되, ‘이것이 귀와 눈이 없건마는 밥 먹는 소리를 듣고 나오니 필연 밥을 먹고자 함이라. 아무령거나 밥을 주어 보리라.’ 하였다. 부인도 고이하여 밥을 갖다가 곁에 놓으니, 그것의 한쪽 옆이 들먹들먹하더니 한 모서리가 봉긋하며 마치 주걱 모양 같은 부리를 내밀어 밥을 완연히 먹었다. 승상이 하도 고이하여 부인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입이 없는가 하였는데 밥을 먹으니, 사람일 것 같으면 태어난 지 십여 일 만에 어찌 한 그릇 밥을 다 먹으리오? 아무령거나 밥을 더 주어 보라.”

하였다.

부인이 웃고 밥을 또 가져다 놓으니, 그것이 주는 대로 먹으며 승상과 부인이 더욱 고이하게 여겼다. 그것이 밥 먹는 대로 점점 자라 큰 동이만 하게 되었다. 승상이 부인을 청하여 함께 보고 크게 의혹하여 가로되, “이후는 밥을 끊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먹이라.”

하고,

“매양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름을 지어 원(圓)이라 하라.”

하였다.

밥 먹기를 잘하여 점점 자라 큰 방 안에 가득하니, 더욱 흉하고 고이함을 측량치 못하여 말하기를,

“원이 더 자라면 방을 찢을까 싶으니 넓은 집으로 옮기자.”

하고, 노복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것을 여럿이 옮겨 후원 월영각에 가져다 두라.”

하였다. 비복이 겨우 옮겨 월영각에 두고 아침과 저녁을 공급하였다. 몇 년 안에 한 섬의 밥을 능히 먹으니, 원이 점점 자라 방이 터지게 되었다. 승상 부부와 비복들이 그 연고를 알지못하여 답답하여 밤낮 근심으로 지내는데,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어느덧 십여 년이 되었다.

(중략)

이때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내실(內室)이 텅비어 있었다. 가뜩이나 염려하던 차에 의혹이 가슴에 가득하여 집안 내외인을 다 찾으니, 비복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아뢰되,

“월영각에 난데없는 선동(仙童)이 노복 등을 부르시나 차마 혼자 가지 못하여 모두 보온즉, 방 안에 가득한 것은 없고 한 소년 선동이 앉아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냐.’ 물으시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그 비복을 데리고 월영각에 가 보니, 한 소년이 승상을 보고 섬돌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 가로되,

“소자는 십 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

승상이 우연히 그 형상을 보고 급히 부인을 청하여 좌정하고 소년을 불러 대청 위에 앉히고 묻기를,

“이 일이 하도 고이하니 사실을 자세히 이르라.”

하였다.

소년이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남두성이 옥황상제께 득죄하여 십 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죄악이 다 끝났다.’ 하고, 허물을 벗겨 방 안에 두고 이르기를, ‘이 허물을 가져갈 것이로되 네 부모께 뵈어 확실한 자취를 알게 하라.’ 하고 갔사오니, 소자가 보자기를 벗고 보온즉 허물이 곁에 놓여 있고 책 세 권이 놓였사오니, 십 년 불효를 어찌 다 아뢰리이까?”

승상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허물이 방 안에 놓여 있고 천서(天書) 세 권이 분명히 놓였거늘, 마음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여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음 가득 기뻐하여 말하기를,

“네가 십 년 동안을 보자기 속에 들어 있었으니 무슨 알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서 우리의 의혹을 덜게하라.”

원이 고개를 숙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십 년 동안 고행하였사오나 아무런 줄을 몰랐사오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승상 부부가 그제야 원을 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가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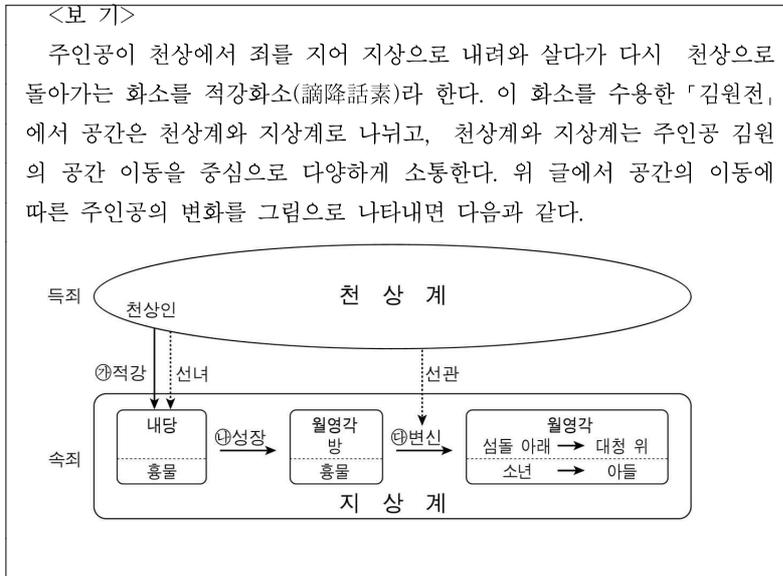
㉠ “네가 어이하여 십 년 고생을 이다지도 하였느냐?”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내외 상하(內外上下)며 이웃과 친척 가운데 뉘 아니 기뻐하리오.

- 작자 미상, 「김원전」-

21.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46)

- ① 김 승상은 흉물의 탄생을 자신의 탓으로 여겼다.
- ② 부인은 흉물이 밥을 먹자 근심했다.
- ③ 노복은 흉물을 대하는 부인의 태도를 비웃었다.
- ④ 김원은 흉한 모습이 부모께 걱정을 끼쳤다고 여겼다.
- ⑤ 김 승상 부부는 이웃의 반응을 보고 의혹을 해소했다.

※ <보기>를 참고하여 22번과 2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2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7)

- ① ㉠의 결과로 얻게 된 ‘이것’이라는 호칭은 주인공이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 ② ㉠의 성격 때문에 ㉡의 과정에 선관이 개입한다.
- ③ ㉡에서 ‘밥’ 먹기를 통해 홍물은 이름을 얻게 되어 ‘골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
- ④ ㉡의 결과를 비복은 김 승상에게 보고하여 부자 관계 확인의 정당성을 제시한다.
- ⑤ ㉡ 이후, 부자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김원의 바람은 ‘불초자’라는 호칭으로 구체화된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48)

- ① ㉠의 공간 이동은 죄의 대가라는 점에서 주인공이 ㉠에 대해 수동적임을 알 수 있다.
- ② ㉡, ㉢는 ㉠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천상계가 지상계보다 근원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③ ㉡, ㉢에 대한 부모의 의심은 천상계와 다른 지상계 나름의 질서가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 ㉢에 김원과 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것은 지상계의 의지만으로 천상계의 질서가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는 증거물을 통해 부모에게 확인받는다 점에서 천상계의 질서는 지상계와의 소통 속에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24. ㉠의 상황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49)

-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② 팔목상대(刮目相對)
- ③ 권불십년(權不十年)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⑤ 오리무중(五里霧中)

그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꼬두메를 찾아 내려가고 있는 찻이었다**. 허황하기조차 한 그녀의 뉘두리를 좇아 이렇듯 추운 한겨울밤을 완행열차에 흔들리며, 떠나온 지 **십삼 년이 넘은 고향으로 향하게 되리라고는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미처 상상조차 못 했던 것이다**. 이 느닷없는 귀향길은 어찌보면 어처구니없을 만큼 충동적으로 결행된 셈이었다. 아내의 말마따나 제정신이 아닌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바로 **이날 오후였다**. 휴일이 아닌데도 그는 담배꽂초만 재떨이에 수북하게 쌓아 가며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다. 몸이 불편해서 출근하지 않는 줄로만 여겼는지, 아내는 되도록이면 그를 혼자 있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눈치였다. **이날 아침 그는 기어이 사표를 써서 집 앞 우체통에 넣었던 것이다**. 몇 푼 안 되는 퇴직금은 고사하고라도 몇 달째 밀린 봉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다. 무엇보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동료들의 누렇게 뜬 얼굴들을 대하기가 소름이 돋도록 두려웠다. 결국 그는 또다시 **실업자가 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번으로 꼭 두 번째였다. 신문사를 나온 후, 오 년 동안의 그 공백 기간에 겪었던 처참함을 그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아내는 다시 예전처럼 방 한 칸이 달린 구멍가게 자리를 구하기 위해 발바닥이 부르드도록 뉘두리를 돌아다닐 수도 없으리라. 그나마 남아 있던 쥐꼬리만 한 돈은 바닥이 난 지오래였고, 전세금을 줄여 가며 뉘두리만 이사를 다니다가 급기야 월세방 처지로 주저앉게 된 지도 벌써 이태째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도저히 또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설 용기도 아니, 그래야 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사라져 버리고 만 듯한 느낌이었다**.

놀라우리만큼 자신이 허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이즈음에야 그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어머니의 몰락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가장 확실한 선물일 수도 있었다. **어머니의 그 넓고 미더운 그들이 머리 위에서 걸히어져 버리고 난 후**, 그는 ㉠ **햇볕 속으로 나온 음지 식물처럼 삼시간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다**. 놀랄만한 콧물을 후룩거리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는 수없는 방황을 치러 왔지만, 그때마다 그를 단단히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준 것은 바로 어머니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던 것이다. 오 년의 실직 기간 동안, 거의 날마다, 그것도 언어마신 술에 취해 밤늦게 돌아와 대문 앞에서 허물어지듯 쓰러져 버리곤 하던 그가 그래도 최후의 고집스런 용기만은 요행히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어머니의 그 ㉡ **변함없는 그늘을 은연중에 믿고 있었음으로 해서이리라**. 하지만 **이젠 어머니의 그 야윈 손길마저도 아무런 ㉢ 기적을 베풀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 절망의 심연으로 까마득히 가라앉아 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중략)

아아. **이 눈 속에서 어머니는 혼자 어디로 가신 것일까**. 찬우야이. **꼬두메로** 펑 가자이. 불길한 주문만 같던 어머니의 음성이 췌전에서 맴을 돌았다. 정말, 어머니는 기어코 **꼬두메를 찾아가시겠다고** 얼토당토않게서리 홀로 길을 나선 것일까. 온몸에 하얗게 눈을 맞으며 어디론가 하염없는 걸음을 옮기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꼬두메는 이미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 속의 마을이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이젠 더 이상 아무도 그곳을 기억해 주지 않는 이 땅을 떠나, 그 과거의 이름들이 아직 살아 숨 쉬고 있을 또 다른 세계를 찾아 길을 나선 것일까. 그렇다면 그 세상은 오직 어머니 혼자만 아는, 당신만의 소중한 세계일 터였다. 거기엔 어머니가 한시도 잊지 못했던 그리운 사람들과 정겨운 이름들이 예전 그대로 살아 있을 것이었다. 한쪽 눈을 못 보는 아버지와 착한 형, 그리고 어찌면 어린 시절의 그의 옛된 얼굴도 그 가난한 식구들 곁에서 함께 곤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니야. 그러나 그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어 버렸다. 꼬두메는 이 땅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땅 각의 땅일 뿐이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분명한 사실을 다만 어머니 혼자서만 아직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찾아야 해, 어머니를 찾아내야만 해.**

그는 마침내 흐드러지게 쏟아져 내리는 함박눈을 맞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잣고개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차츰 눈송이가 굵어져 가고 있었다. 은빛, 세상은 은통 은빛이었다.

- 임철우, 「눈이 오면,-

**[내용 이해]**

두 번째로 사표를 내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꼬두메를 찾아 가신 어머니를 찾으러 감

**[초점(관심)]**

‘그’에게 지난 날 지냈던 어머니의 위상과 힘겨운 삶에 대한 절망  
어머니의 꼬두메에 대한 집착과 부재에 대한 인식

**[서술 방식]**

특정한 인물의 내면 심리의 흐름을 중심으로 서술자의 직접 전달과 주인공의 심리가 섞여 있다.

28.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50)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담담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서술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시간의 흐름 : 현재(떠남)→과거(사표냄)→현재(어머니를 찾으러 다님)
- 특정 인물의 시각 : 전지적 작가가 한 사람의 심리만 파악
- 담담한 태도로 객관적으로 묘사 : 원칙적으로 소설 자체가 주관적 서술이므로 적용되기 어렵다. 특히, 주인공 시점이나 전지적 시점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서술 : 사건 전개와 심리를 간접적으로 전개하는 경우
- 인물 간의 대결 의식 : 인물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음을 의미

29.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sup>51)</sup>

<보 기>

임철우의 소설 「눈이 오면」은 고향을 찾아가는 ‘여로(旅路)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구조는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작중 인물의 성격 창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① ‘그’가 귀향 여행을 충동적으로 결행한 것으로 설정하여, ‘그’의 성격이 즉흥적이면서도 낙천적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② 십삼 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을 찾아가도록 하여, ‘그’가 지금까지 현실과 타협하면서 잘 적응해 왔음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 ③ 겨울밤 완행열차를 귀향 수단으로 택해 성찰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반성해 보도록 하였다.
- ④ 귀향 과정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제시하여, ‘그’가 사려 깊지 못하고 부주의한 인물이었음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 ⑤ 귀향하는 날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그’가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물로 변모되었음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 소설에서 보기가 제시될 경우 오답은 거의 내용 왜곡임을 기억하자!! 내용과 선지의 연결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의미이다.
- ①낙천적, ② 잘 적응, ④ 사려 깊지 못하고, ⑤ 적극적 삶의 추구가 내용과 연결되지 않는다.
- ③ ‘그’가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반성-기차 안에서 그날의 일과 과거 사표를 냈을 때의 절망하는 모습에서 암시되어 있다. ‘반성’이라는 의미를 지난 날에 대한 성찰 정도로 이해하자.

**[보기 활용하기]**

보기에 나타나 있는 <여로>+[전개 과정이나 인물의 성격 창조]와 연결되어야 한다. 전개 과정이나 성격과의 관련성은 둘 중 하나의 선택이다. 모두 보기와는 연결 가능하므로 이 방법으로 찾기가 힘들다;;;

**인물의 성격 창조** : 인물의 개성적 성격을 제시하다.

30. 꼬두메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sup>52)</sup>

- ① 꼬두메에는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여 있다.
- ② 꼬두메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 ③ 꼬두메가 이 세상에 없음을 ‘어머니’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 ④ 꼬두메는 ‘그’가 가족과 함께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곳이다.
- ⑤ 꼬두메는 ‘어머니’가 찾아가고 싶어 하는 그녀의 소중한 세계이다.

“알겠습니다. 이 일은 사모님, 부사장님, 저만 아는 비밀로 백삼집에 사건을 무마하도록, 질주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뭐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모님이시다보니 신중을 기하느라고 조심할 뿐, 이 정도야 간단히 처리할 수 있죠. 저쪽이 훨씬 약하니깐요, 그 처지에 돈 보고 환장 안 하게 됐습니까.”

“사무장도 말 좀 골라 뵙시오. 같은 말이라도, 환장이 뭐요? 물론 우리 집안 명예와 어머니 명예도 중요하지만, 사무장도 이걸 명심하십시오. **운전수네 가족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 말입니다. 운전수 쪽 가족 생각이, 이번일은 돈에 시우 군이 팔린 게 아니라 주인아주머니의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운전수 된 도리로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뿐이다. 그러다 보니 그 성의 표시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게 되어 은혜를 갚는 느낌이다. 운전수와 가족이 이런 생각을 갖게끔 사무장이 처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돈이란 쓰기 나름이라 잘못 쓰면 오히려 돈은 돈 대로 없어지고 욕까지 먹게 돼요. 운전수 가족에게 최대한 성의를 표하고 그들이 그 성의를 진실로 받아들이게끔 행동하란 말이예요.”

이 선생은 젊은 부사장의 설교조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

(중략)

이 선생이 누누이 들려준 말처럼 시우는 아무리 **사태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1년 미만 징역에 2년 집행 유예로 나갈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선생이 올린 항소가 고법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자, **자기만 억울하게 함정에 빠진 듯했고, 사모님은 물론 가족마저도 돈에 눈이 어두워 자기를 속임수에 이용하는 듯하여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중우 형 면회가 있고부터 그는 한결 새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시우야, **일백삼십에서 또 오십만 원을 더 받았어.** 네가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백팔십이 된 거야. 네가 우리 가족을 살린 거란 말이야. 그 돈이면 **나두 공사판을 그만 두구 장사를 시작할 수 있어.** 너도 야간이라도 학교엘 나갈 수 있게 됐구. 참아 줘. 이걸 정말 면목이 없지만, 어떡 하니. 그럴 수밖에 없잖니? 그에게 사모님을 만나 같이 네 애길 했더랬어. 전생애 다시 갚지 못할 빚을 내게 졌다면서말이야. 네가 출감하면 운전수든 뭐든 다시 일을 시키겠다고, 월급을 올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시우야, 이 형이 양심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우리 두 성공하여 옛말하구 살자꾸나,** 정말 성공하여 남부럽잖게 될 때, 이피 눈물 나는 고생은 그때 가서 위로하자…….”

떨찌감치 선 간수 귀를 피해 귀엣말로 중우 형이 이렇게 말할 때, 두 형제는 함께 울었다. 시우는 검게 탄 형의 거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철창 사이로 굳게 잡은 형의 억센 손이 떨리고 끝내 꺼억거리며 흐느낄 때, **시우는 여지껏 침묵한 채 참아 왔듯 몇 달을 참기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몇 달 감옥 생활을 이겨 내기로 결심했다.**

오늘 아침, 녀 달 동안 ㉠ **집 안방과 다를 바 없는 안착지로 떠나게 되자 까닭 없이 마음이 설레 아침밥도 거르게 되고, 그걸 공복과 더불어 한기를 가중시켰다.** 시우는 연방 떨며 다시 중얼거렸다. **정말 겨울은 지금 부터이고 고생도 시작인데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눈이 오면 날씨가 포근한 뱀인디 워찌 요렇게 차다냐. 이런 날은 개팔

자가 젤이여.”

“글쎄 말이다. 동지도 그름이모 열매 안 있어 새해 아닌가 말이다. 그 라모 했수로 일 년 넘기는 긴데, 헤헤. 그렇게 했수로 따져서 내보내 준 다 카모 난도 출감이 가까운데 말이다.”

도란도란 입김으로 나누는 말소리가 시우 귀에 다습다, 몇 명이 같은 감방에 있게 될는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수감될는지 모를 ㉠ **다정한 얼굴을** 시우는 눈여겨보았다. **강도·절도·사기·살인, 각각 이마밖에 눈에 띄지 않는** **뜻말**을 붙이고 그들은 겨울잠을 즐기는 두더지 꼴로 엉겨 있었다.

“젊은 친구, 이쪽으로 와. 거긴 더 추울걸.”

개팔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떨어져 앉은 시우에게 말을 던졌다. 구레나룻 시커먼 그는 토지 사기범이었다. 시우는 빙긋 웃어 보이곤 다시 쇠창살 밖으로 눈을 주었다. 버즘나무 가지에 매달린 고깔 열매가 눈을 맞고 있었다. 시우는 ㉡ **산타클로스 모자가** 생각났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고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족이 쌀밥에 고기반찬을 먹겠거니 여겨졌다. 그리고 형은 **지금쯤 눈을 맞으며 저 어디 화곡동이나 봉천동 신흥 주택 지대를 싸들며 식품점 벌일 점포를 물색하고 다닐 터였다, 그렇게만 되면** **울속이도 내년이면 맞춘 중학 교복을 입고 봄날 터였다,**

시우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과자며 음료수, 채소, 과일, 각종 일용품이 진열된 상점이 떠올랐다. 점포 이름은 고향 이름 그대로 백암 상회라 붙이겠다고 형이 말했다. 철창을 올려다보던 시우가 갑자기 말 울음소리로 웃었다. 그묘한 웃음소리를 듣고 동료 죄수들 눈이 그에게 쏠렸다. 개팔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시우를 보며 시큰둥 한마디 했다.

“저건 웃는 게 아니구먼. 웃음도 여러 질이여. 저 상판 봐여.”

- 김원일, 「잠시 높은 풀,-

**[내용 이해]**

돈으로 교통 사고를 시우에게 책임지우는 사모와 그것을 수용하는 시우 =>돈

**[초점(관심)]**

사고의 책임을 뒤집어 쓴 시우의 심리 변화

**[서술 방식]**

대립적인 장면을 제시하여 돈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현대사의 단면을 제시 사건에 대한 인물의 심리 변화 과정을 제시

35.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사물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사실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⑤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에 맞추고 있다.

- 의식의 변화 과정이 나타나 있으나 주변 상황에 대한 반응 및 생각의 변화로 무의식이 아니다.
- 앞서 말한 것처럼 객관적 묘사는 주인공 시점/전지적 시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주인공의 심리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의!!앞부분에 대립적인 장면의 제시는 주인공의 처지를 부각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일.

36.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sup>53)</sup>

- ① 부사장은 기만적인 인물이다.
- ② 시우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 ③ 죄수들은 다른 죄수에게 관심을 보인다.
- ④ 사무장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 ⑤ 종우는 시우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 인물의 성격 파악 여부를 묻는 문제.
- 인물의 성격은 ‘착하다, 예쁘다, 강하다, 나약하다’와 같이 형용사로 서술되는 면도 있지만, 사건이나 다른 인물에 대한 대응 태도를 통해 드러내는 인물의 유형적(전형적) 성격을 의미하는 측면이 더욱 강하다.
- 따라서 성격 파악을 위해서는 사건 및 인물에 대한 대응 태도를 통해서 계층적(전형적/대표적) 성격을 찾아야 한다.(예:돈으로 시우에게 책임을 지우는 사장일가=>물인정하고 파렴치하며 비도덕적인 현대 자본주의를 대표한다./돈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는 시우:돈의 힘 앞에 무기력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애정이 살아 있는 현대 빈민층의 삶을 대표한다.

37. ㉔의 결과로 나타난 시우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㉑      ② ㉒      ③ ㉓      ④ ㉔      ⑤ ㉕

- 인물의 심리를 묻는 문제이다. 인물의 심리는 앞뒤 문맥을 보아 이어지는 사건과 관련하여 파악해야 한다.
- 심리(반응)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현대 소설은 대화나 대화 속 어조, 인물의 행동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므로 주의

38.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sup>54)</sup>

<보 기>  
 김원일의 초기 소설은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권력에 의한 사건 조작 모티프는 약자의 삶에 고통을 가중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위 작품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구도 아래, 가진 자의 음모를 보여 주는 한편, 악의적 세계에 짓눌린 사람들의 실존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급박한 생존의 현실을 감내하려는 인물을 통해 부조리한 상황을 부각하였다.

- ① ‘말 울음소리’ 같은 웃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담아내고 있군.
- ② ‘백암 상회’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굴욕적인 현실을 견디게 해 주는 힘으로 볼 수 있겠어.
- ③ 사건 조작 모티프의 설정은 작가가 당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 ④ ‘사모님’이 약속한 배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으로 사람을 거래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어.

⑤ 면회소와 신혼 주택 지대의 공간적 대립은 가진 자의 악의적 세계와 그에 짓눌린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 주기 위한구도라고 할 수 있겠군.

- 보기가 주어진 문제는 일반적으로 보기의 내용과 대응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기의 내용 중에서 언급되어야 하며, 이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말.
- 소설에서 제시된 보기는 소설 내용의 왜곡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기 지문보다는 내용과 관련성을 먼저 따지는 것이 빠른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 태수 절인수는 원수(元帥)를 가까이에서 보셨으며, **원수는 절인수 인 줄** 아나 인수는 경작이 원수가 되었음을 생각지 못하더라. 원수가 아는 체하고자 하되, 군영(軍營)이 요란하여 사사로운 정을 펴지 못하였더니, 이제 번왕 남곽을 평정하고 군영이 고요한데 인수 홀로 모셨더라. 원수가 저의 몰려가지 않았음을 보고 시동을 불러 당상으로 칭한대, 태수 사양하여 오르지 않거늘 원수가 친히 이끌고 가로되,

“인수 형이 능히 경모를 모르오?”

“소관(小官)이 정신이 밝지 못하고, 일찍 먼식이 없으니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원수가 잠소(潛笑) 왈,

“형이 과연 눈이 무디다 하리로다. 옛날 금주에서 소 먹이던 목동이었다가 양 승상의 둘째 사위가 된 이경작을 모르오?”

태수가 생각 밖이라. 깨닫지 못하여 가로되,

“그 사람은 소관의 동서러니, 금주를 떠난 지 벌써 십일 년이옵니다.”

**“십일 년 못 보던 경작이 곧 나이니 형은 모름지기 의아치마오.”**

설 태수가 어지러운 듯, 취한 듯하여 오래 말을 못 하더니 이에 자세히 보니 **완연한 경작이라, 놀라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지위를 잊고 손을 잡아 급히 이르되,

“경작 형! 꿈이오? 생시오?”

원수가 웃으며 왈,

“형은 놀라지 마오.”

하고 인하여 서로 잔을 들어 **유쾌히 술을 마시며** 정을 펼새, 태수가 매우 양 원수의 대덕과 넓은 도량, 기이한 풍도를 우러렀더니 이날 자리를 나란히 하여 잔을 날리며 별회를 베푸니, 마음에 세상일을 가히 헤아리기 어려움을 탄하더라.

원수가 문왈,

“외방에 있는 지 벌써 십일 년이라. **처형은 평안하시오?**”

설 태수가 답소(答笑) 왈,

“나는 비록 약한 남자이나 조강지처를 무단히 버리지 아니하니 몸이 편하여 자녀를 갖추어 두었거니와, 형은 약한 부인을 무단히 버리고 십일 년에 이르도록 한 번 편지를 부치는 일이 없었소. 이제 몸이 **으뜸 벼슬로 부귀영광이 비길 곳이 없고, 어진 덕과 넓은 덕을 추앙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오직 빈 방의 약한 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박덕함이 심하여 장차 약한 부인이 몸을 보존치 못하게 되었으니 가장 어둡고 무심한 장부라,** 나는 비록 벼슬이 낮아 형을 모시고는 있으나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가히 형보다 낫다고 이르리로다.”

하고 대소한대, 원수가 또한 웃고 왈,

“형이 어찌 괴이한 말로써 나를 조롱하오? 가장 가소롭도다. 그러하나 금주의 처가는 평안하시오?”

태수 왈,

“집안은 평안하나 형의 부인이 병이 위중하여 **속수무책 조석으로 목숨을 빈다 하니 형이 비록 몸이 영귀하나 무엇이 즐거우리오?**”

원수가 듣고 놀라 얼굴을 붉히며 왈,

“과연 형의 말이 옳소?”

“비록 농담이라도 어이 큰 말에 허언을 하리오?”

“목숨의 길고 짧음과 부귀빈천은 하늘에 달렸으니 인력으로 어찌 하리오?”

“**형이 곧 경사(京師)\*로 가리니, 길이 금주로 지날 것이니 들러 감이 어떠하오?**”

“부모 묘소가 게 있으니 **들르지 아니리오?**”

“어느 때에 경사로 향할 것이오?”

“백성이 어지러웠으니 서너 달 더 머물러 위로하고 가려 하오.”

“내 관아가 비록 작으나 수일 후 형을 전송하리니 벼슬이 높다고 사양하지 마오.”

원수가 소왓,

“본디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라. 주는 것을 사양할 리 있으리오? 먹는 양을 알아서 큼직이 준비하오. 내 당당히 가겠소.”

태수가 소왓,

“벼슬이 높으니 이제 그 술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

원수가 대소 왓,

“금제한 후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

태수가 소왓,

“내가 양식이 부족하여 풍성하지 못하니 형의 양에 차게 하려면 필연 죄를 면치 못하리니 올 적에 말총으로 창자를 줄라매고 오오.”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리고 가겠소.”

“그럴진대 아예 오지 말라 할 것이오.”

“국법이 본래 나 같은 사람을 각 도에서 영접하고 잔치하고 공경하고 관대하라 하였으니 적게 못할 것이오.”

**두 사람이 대소하고 설 태수 돌아와 부인 난주를 대하여 이원수의 전 후 일을 일일이 전하고 기특히 여김을 마지않으며,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남에 못내 감복하더라.**

- 작자 미상, 「낙성비룡(洛城飛龍)」-

\* 경사 : 나라의 수도.

**[내용 이해]**

경작과 설인수가 11년만에 만나서 서로의 근황을 반갑게 주고 받음

**[초점(관심)]**

경작의 물음에 대한 설인수의 대답 등 격의 없는 대화를 바탕으로 경작의 처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경작이 자신의 처가에 가도록 유도함.

**[서술 방식]**

고전적 문어체와 대화를 활용하여 사건을 전개함

47. 위 글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한 것은?55)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 ④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현대 소설의 특징이 대부분 오답이 된다. 선지에서 ②, ③, ④는 현대 소설의 특징이다. 따라서 먼저 제거하고 봐도 된다. 단, 이는 통계적 확률을 의미하지 인과 관계가 아니므로 다른 것을 먼저 살피되, 답의 확신이 있을 때 배제해야 한다.

48.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56)

<보 기>  
 「낙성비룡」은 조선 왕실에서 향유되었던 낙선재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영웅소설인 「소대성전」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신이한 태몽을 가지고 탄생한다.
-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생한다.
- 인물됨을 알아보는 장인 될 사람을 만난다. …………… ㉠
- 한때 잠을 많이 자는 모습을 보인다. …………… ㉡
- 장모의 구박으로 처가를 나온다. …………… ㉢
- 수련을 거쳐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 …………… ㉣
- 아내와 해후하여 행복하게 산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 나타나 있어서 대응되는 내용만 찾아야 한다. <보기>에서 ‘모두’ 공통점을 지닌다고 했으므로 당연히 두 작품 모두에 있다. 다만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을 뿐이다.

49.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57)

- ① 처자식을 중시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어질고 넓은 상대방의 인품을 칭송하고 있다.
- ③ 처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④ 손윗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잘못된 처신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벼슬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당당히 말하고 있다.

▪ 문맥을 통해서 상황의 파악이 되어야 한다. 즉, 표면적인 내용 이해가 아니라 심층적 관계 파악이 되어야 한다.

50. 위 글에 드러난 상황을 한자 성어를 이용하여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58)

- ① 경모가 11년 만에 돌아온 것은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경모와 설 태수가 다시 만난 것은 오월동주(吳越同舟)라고 할 수 있어.
- ③ 경모가 설 태수에게 국법을 운운한 것은 정말 적반하장(賊反荷杖)이야.
- ④ 설 태수가 경모를 보고 놀란 것은 경모가 환골탈태(換骨奪胎)했기 때문이야.
- ⑤ 설 태수와 경모가 서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한 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대표적인 예야.

하루는 승상이 심자가 상쾌하여 정신을 깨달아 대당에 들어가 부인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는지라.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것이 우리의 골육이니**, 남은 **다 흉물이라 하여도 출산할 때에 선녀의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심한 것이라면 어찌 선녀가 와서 해산까지 시켰으리오?** 필경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 듯하니, 아무리 흉악해도 집에 두고나중을 보사이다.”

하고 저녁을 먹으니, 그것이 밥상 곁에서 밥 먹는 소리를 듣고는 이불 속에서 데굴데굴 굴러 나와 승상 곁에 놓이었다. 승상이 크게 놀라 이윽히 보다가 갑자기 생각하되, ‘이것이 귀와 눈이 없건마는 밥 먹는 소리를 듣고 나오니 필연 밥을 먹고자 함이라. 아무령거나 밥을 주어 보리라.’ 하였다. 부인도 고이하여 밥을 갖다가 곁에 놓으니, 그것의 한쪽 옆이 들먹들먹하더니 한 모서리가 붕긋하며 마치 주걱 모양 같은 부리를 내밀어 밥을 완전히 먹었다. 승상이 하도 고이하여 부인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입이 없는가 하였는데 밥을 먹으니, 사람일 것 같으면 태어난 지 십여 일 만에 어찌 한 그릇 밥을 다 먹으리오? 아무령거나 밥을 더 주어 보라.”

하였다.

부인이 웃고 밥을 또 가져다 놓으니, 그것이 주는 대로 먹으며 승상과 부인이 더욱 고이하게 여겼다. **그것이 밥 먹는 대로 점점 자라 큰 동이만 하게 되었다.** 승상이 부인을 청하여 함께 보고 크게 의혹하여 가로되, “이후는 밥을 끊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먹이라.”

하고,

“매양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름을 지어 원(圓)이라 하라.”

하였다.

밥 먹기를 잘하여 점점 자라 큰 방 안에 가득하니, 더욱 흉하고 고이함을 측량치 못하여 말하기를,

“원이 더 자라면 방을 찢을까 싶으니 넓은 집으로 옮기자.”

하고, 노복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것을 여럿이 옮겨 후원 월영각에 가져다 두라.”**

하였다. 비복이 겨우 옮겨 **월영각에 두고 아침과 저녁을 공급하였다.** 몇 년 안에 한 섬의 밥을 능히 먹으니, 원이 점점 자라 방이 터지게 되었다. 승상 부부와 비복들이 그 연고를 알지못하여 답답하여 밤낮 근심으로 지내는데,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어느덧 십여 년이 되었다.**

(중략)

이때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내실(內室)이 텅비어 있었다. 가뜩이나 염려하던 차에 의혹이 가슴에 가득하여 집안 내외인을 다 찾으니, 비복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아뢰되,

“월영각에 난데없는 **선동(仙童)**이 노복 등을 부르시나 차마 혼자 가지 못하여 모두 보온즉, 방 안에 가득한 것은 없고 한 소년 선동이 앉아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냐.’ 물으시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그 비복을 데리고 월영각에 가 보니, **한 소년**이 승상을 보고 섬돌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 가로되,

“소자는 십 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

승상이 우연히 그 형상을 보고 급히 부인을 청하여 좌정하고 소년을 불러 대청 위에 앉히고 묻기를,

“이 일이 하도 고이하니 **자질을** 자세히 이르라.”

하였다.

소년이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남두성이 옥황상제께 득죄하여 십 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죄악이 다 끝났다.**’ 하고, 허물을 벗겨 방 안에 두고 이르기를, ‘이 허물을 가져갈 것이로되 네 부모께 뵈어 확실한 자취를 알게 하라.’ 하고 갔사오니, 소자가 보자기를 벗고 보온즉 허물이 곁에 놓여 있고 **책 세 권이 놓였사오니, 십 년 불효를 어찌 다 아뢰리이까?**”

승상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허물이 방 안에 놓여 있고 천서(天書) 세 권이 분명히 놓였거늘, 마음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여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음 가득 기뻐하여 말하기를,

“네가 십 년 동안을 보자기 속에 들어 있었으니 무슨 알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서 우리의 의혹을 덜게하라.”

**원**이 고개를 숙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십 년 동안 고행하였사오나 아무런 줄을 몰랐사오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승상 부부가 그제야 원을 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가로되,

① “네가 어이하여 십 년 고생을 이다지도 하였느냐?”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내외의 상하(內外上下)며 이웃과 친척 가운데 뉘 아니 기뻐하리오.

- 작자 미상, 「김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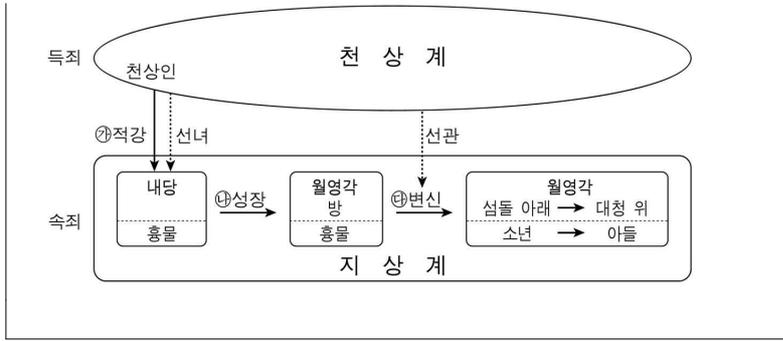
21.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59)

- ① 김 승상은 흉물의 탄생을 자신의 탓으로 여겼다.
- ② 부인은 흉물이 밥을 먹자 근심했다.
- ③ 노복은 흉물을 대하는 부인의 태도를 비웃었다.
- ④ 김원은 흉한 모습이 부모께 걱정을 끼쳤다고 여겼다.
- ⑤ 김 승상 부부는 이웃의 반응을 보고 의혹을 해소했다.

※ <보기>를 참고하여 22번과 2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주인공이 천상에서 죄를 지어 지상으로 내려와 살다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화소를 **적강화소(謫降話素)**라 한다. 이 화소를 수용한 「김원전」에서 **공간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뉘고**, 천상계와 지상계는 주인공 김원의 공간 이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소통한다. 위 글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주인공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sup>60)</sup>

- ① ㉠의 결과로 얻게 된 ‘이것’이라는 호칭은 주인공이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 ② ㉠의 성격 때문에 ㉡의 과정에 선관이 개입한다.
- ③ ㉡에서 ‘밥’ 먹기를 통해 홍물은 이름을 얻게 되어 ‘골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
- ④ ㉡의 결과를 비복은 김 승상에게 보고하여 부자 관계 확인의 정당성을 제시한다.
- ⑤ ㉡ 이후, 부자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김원의 바람은 ‘불초자’라는 호칭으로 구체화된다.

▪ 전형적인 내용 왜곡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내용과 관련지어 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sup>61)</sup>

- ① ㉠의 공간 이동은 죄의 대가라는 점에서 주인공이 ㉠에 대해 수동적임을 알 수 있다.
- ② ㉡, ㉢은 ㉠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천상계가 지상계보다 근원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③ ㉡, ㉢에 대한 부모의 의심은 천상계와 다른 지상계 나름의 질서가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 ㉢에 김원과 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것은 지상계의 의지만으로 천상계의 질서가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은 증거물을 통해 부모에게 확인받는다 점에서 천상계의 질서는 지상계와의 소통 속에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 선지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문제, 소설 문제로서 앞서 말한 바와 달리 보기 내용의 인과적 연결이 잘못되었다. 보기에는 인과적 소통에 대해서 나와 있지, 지상계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24. ㉠의 상황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sup>62)</sup>

-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② 팔목상대(刮目相對)
- ③ 권불십년(權不十年)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⑤ 오리무중(五里霧中)

#### 14. 희곡 및 시나리오.

▷ 기본 방법 및 출제 유형은 소설과 같다. 다만 최근 경향이 시나리오 중심이며 갈래별 특성(실제 상연과 관련된)과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특성	희곡	소설
제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대 위에서 행동으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메라 앞에서 연기 후 편집 과정을 거침</li> </ul>
제약 및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장 인물 수와 장면 제시에서 제약을 심하게 받음</li> <li>조명이나 음향 등과 같은 특수 효과를 포함.</li> <li>행동이나 인물의 모습이 다소 과장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 촬영 후 편집하여 장면의 자유로운 제시가 가능함.</li> <li>행동이나 모습이 실제와 유사함.</li> <li>기술적인 한계 외에 장면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음</li> </ul>
제약의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장 인물이나 상징적 소재를 통하여 외부 사건 전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없음</li> </ul>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명한 갈등 관계를 바탕으로 유형적(계층적) 성격이 강함</li> <li>무대 상연이 전제되므로 약간 과장된 행동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실성이 강하게 드러남</li> </ul>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유적, 압축적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설과 유사</li> </ul>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약 없음</li> </ul>

[1106]

앞부분의 줄거리 : 궁에서 쫓겨난 평강 공주는 대사와 함께 절로 가던 길에 온달을 만나 결혼한다. 10년 후 온달과 함께 궁으로 돌아온 공주는 온달이 장군이 되도록 돕는다. 온달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하나 관이 움직이지 않는다.

공주 장군\*, 비록 어제까지 장군이 치달던 별판이라 하나, ㉠ 이제 누구를 위해 여기 머물겠다고 이렇게 뼈를쓰십니까? 장군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고구려는 내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원수를 용서치 않으리다. 평양성에 가서 반역자들을 모조리 도륙을 합시다. 자, 돌아가십시오. (손짓을 한다.)

의병장들, ㉡관 뚜껑을 닫고 관을 올려놓은 받침의 채를 감는다.

공주 들어 올려라.

올라오는 관. 모두, 놀라는 소리.

공주 가자, 평양성으로. 그곳에서 잔악한 반역자들을 살살이 가려내어 목을 베이리라. (공주, 움직인다.)

공주, 시녀, 관, 군사들, 서서히 퇴장. 부장과 장수 몇 사람만 무대에 남는다.

장수1 (부장에게) 공주의 노여워하심이 두렵습니다.

장수2 필시 무슨 기미를 알아보셨음이 틀림없습니다.

부장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장수3 투구를 벗으라고 하신 것이 증거가 아닙니까?

부장 어떻게 알았을까? (둘러보고) 너희들 중에 배반하는 자가 있으면 행여 온전히 상금을 누릴 목숨이 있거니는 생각 말아라.

장수들 무슨 말씀입니까. 억울합니다.

부장 그렇겠지. 이것을 문제 삼는다 치더라도 (투구를 벗는다. 머리를 치냈다. 피가 배어 있다.) 이것이 어쨌단 말인가. ㉢ 이토록 신라 놈들과 싸운 것이 군법에 어긋난단 말인가? (음험한 웃음) 두려워 말라. 공주보다 더 높은 분이 우리 편이야.

장수들 (비위 맞추는 너털웃음)

부장 가자, 평양성으로. 그곳에서 과연 누구의 목이 먼저떨어지는가를 보기로 하자.

(중략)

<A>

장교 (공주에게) 자, 걸으시오.

공주 네가 정녕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느냐?

장교 내 말을? 왕명을 받들고 온 사람에게?

공주 이놈이 정녕 실성했구나. 내가 돌아가면 어찌될 줄을 모르느냐? 나는 이곳에 머물기로 하고 이미 아버님께도 여쭙고 오는 길, 누가 또 나를 지시한단 말이나? 정 그렇다면 근일 중에 내가 궁에 갈 것이니 오늘은 물러가라.

장교 정 안 가지겠소?

공주 (분을 누르며) 내가? 말을 어느 귀로 듣느냐? (타이르듯) 내가 아마 잘못 알고 온 것이니, 그대로 돌아가면 오늘의 허물을 내가 과히 묻지 않으리라.

장교 (들은 체를 않고) ㉠ 정 소원이라면 평안하게 모셔오라는 명령이었다. 잡아라.

병사들, 공주의 팔을 좌우에서 잡는다.

공주 어머니.

장교 편하게 해 드려라.

병사1, 칼을 뽑아 공주를 앞에서 찌른다. 공주, 앞으로 쓰러진다. 붙잡았던 병사들, 서서히 땅에 눕는다.

장교, 손으로 지시한다.

병사2, ㉡ 큰 비단 보자기로 공주의 시체를 싼다.

장교, 또 지시한다.

병사들, 공주를 들고 퇴장. 장교, 뒤따라 퇴장. 공주의 살해에서 퇴장까지의 동작은 마치 의전(儀典) 동작처럼. 기계적으로 마디 있게 처리.

대사 공주. 좋은 세상에서 또다시 만남시다.

온모\*,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가 모두 퇴장한 다음 무대 정면으로 조금씩 움직여 나온다.

-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 장군 : 온달.

\* 온모 : 온달의 어머니.

32.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sup>63)</sup>

- ① 공주는 장군의 죽음에 반역자가 연루되었다고 생각한다.
- ② 장수들은 부장의 머리 상처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③ 부장은 공주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 ④ 장교는 부장의 명을 받고 왔다고 말한다.
- ⑤ 병사들은 장교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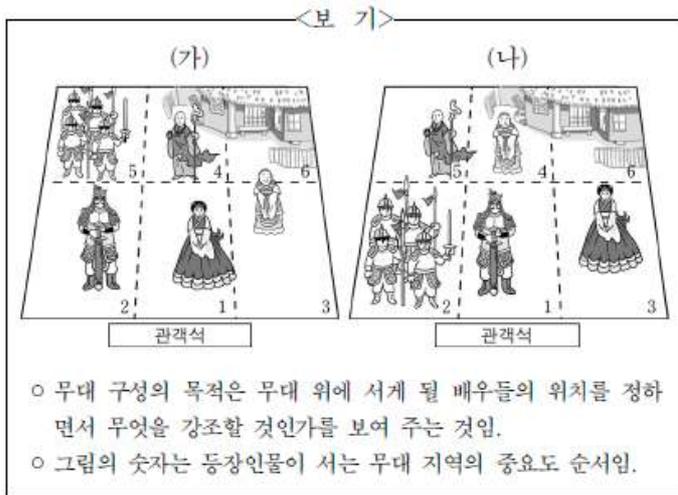
33.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sup>64)</sup>

<보 기>

이 작품은 고전 비극의 형식을 모방하여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 이야기’를 재창작하면서 설화가 지니는 비현실적 요소를 여전히 남겨 놓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4. [A]를 연극으로 상연하기 위해 두 명의 연출가가 [A]의 첫 장면의 무대 구성을 <보기>와 같이 짜 보았다. 연출 의도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인물의 배치만 고려할 것) [3점]<sup>65)</sup>



- ① (가)에서는 대사를 공주와 가깝게 배치하여 (나)에 비해 대사와 공주와의 친밀도를 더 부각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는 장교를 2번 지역에 배치하여 (나)에 비해 장교가 극적 사건 진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겠군.
- ③ (가)에서는 장교·병사들과 공주·대사·온모를 좌우로 나누어 배치하여 (나)에 비해 두 집단의 갈등 관계를 더 강조할 수 있겠군.
- ④ (가)에서는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온모를 다른 인물에 가리지 않게 함으로써, 움직이지 않고 사건을 지켜보는 온모의 역할을 (나)에 비해 더 잘 드러낼 수 있겠군.
- ⑤ (나)에서는 병사들을 2번 지역에 배치하여 (가)에 비해 위압감을 더 잘 나타낼 수 있겠군.